

# 행복한 **책** 읽기

## '이중섭 편지와 그림들' <다빈치 케>

내가 아는 어느 중견 소설가의 아내는 평생 남편의 등만 보고 살았다고 했다. 온종일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것도 모자라 밥상 앞에 마주 앉아서도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있는 남편을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아내의 푸념에 소설가는 어려움 시절 당시 없었던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사는 예술가만큼 불안정한 존재가 있을까. 예술가란 이중섭이 그린 별거 벗은 어린이의 모습처럼 천진하고 현실감이 없어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지독한 공립 속에서도 그림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던 이중섭이 몸과 마음을 부려놓고 기쁠 곳은 아내뿐이었을 것이다. 이 책은 이중섭이 일본에 있던 아내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들과 일본인 아내 마사코(한국이름



오른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작가들은 보통 자신의 세계를 작품으로 말한다. 거기에 몇 가지 기록이나 주위 사람들의 소화가 덧붙여져 한 작가의 생애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작가의 삶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 간혹 그들이 속살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데, 일기나 편지를 통해서이다.

이중섭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는 마치 늘 가까이 있는 아내에

## 이중섭의 사랑과 예술

남덕)가 이중섭에게 보낸 편지들을 모아놓은 편지 모음집이다. 편지 사이사이에 이중섭의 대표 작품 90여 점이 수록되어 있어 그의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우리는 이중섭을 암흑의 시대에 불꽃처럼 살다 간 천재화가라고 부른다. 그밖에도 정직한 화공, 소를 통해 한국인 정서를 나타낸 민중화가, 담뱃갑인 은종이를 재료로 사용한 은종이화가 등 그에게 붙여진 호칭은 많다.

이중섭이 즐겨 그렸던 소 그림들은 거칠고 시원스런 붓 터치로 인해 마치 살아있는 소가 거친 숨을 내쉬며 분노하고 있는 듯하다. 그에게 소는 압박받는 우리 민족과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 던져진 자신의 자화상이었다. 하늘로 높게 솟은 빨, 크지만 서늘해 보이는 눈을 환 황소 그림을 보고 있

게 일상에 대해서 소곤거리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였을까. 책을 읽는 내내 자신이 얼마나 공립한지, 아내와 두 아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술에 대한 갈망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그의 욕망을 듣고 있는 것 같았다.

'나의 거짓 없는 희망의 봉우리, 나의 귀여운, 나의 기쁨의 샘·가장 아름다운 나의 아내·소중한 소중한 나의 남편 군' 이렇듯 이중섭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는 사랑의 수식어가 넘친다. 그러나 그 수식어들은 공허하다 못해 슬프기까지 한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듣기 좋은 말들을 무작위로 쏟아내고 있는 것 같아 그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빈센트 반 고흐는 '언젠가는 내 그림이 내 생활비와 물감 값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아 줄 때가 올 것이다'라고 했다. 이중섭의 그림 한 점이 웬만한 집 한 채 값이 된 지금, 그에게도 위로가 될까.



나정 이

1998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자

## 광주출신 스웨덴 왕립발레단 솔리스트 전은선씨

# “한국에 자유로운 스웨덴 발레 소개하고 싶었다”

### 서울서 솔리스트 갈라공연 총연출

### 초·중·고 호남예술제 최고상 수상

### 유니버설발레단 주역 출신 발레스타



### '광주국제음악콩쿠르' 1차 예선 7명 입상

지역 최초의 기악 부문 국제 경연인 '제1회 광주국제음악콩쿠르' 1차 예선 입상자가 발표했다. 입상자는 피아노의 김서연(예원학교 재학), 아야코 미나미(오사카 음대 재학), 박현희(보스톤음대 박사 과정)씨 등 20명이며 바이올린 부문에서는 박인희(서울대 음대 재학)씨 등 10명, 플루트 부문 권준영(이화여대 졸업)씨 등 7명이다. 오는 9월26일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2차 예선과 본선 심사에는 쾨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심사위원을 역임한 바이올리니스트 하마오 후지와라(일본 도호음대 교수), 서영화(조선대 교수)씨 등이 참여한다. 본선 경연(27일 오후 7시30분)은 제5회 광주국제음악제 일환으로 진행된다. /김미은기자 mekim@

무대 위 그녀는 도도했다. 화려한 붉은 의상을 차려입은 그녀는 '라 바야데르' 주인공 감자덕 공주의 당당함을 절제된 몸짓으로 보여줬다.

앞서 무대에 오른 발레리노 장 에릭 워크스토프의 '발레로' 솔로. 인간의 몸과 타고 격정적일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작품이었다.

지난달 서울 강동아트센터에서 열린 '전은선&스웨덴 왕립발레단 솔리스트 갈라 공연'은 240년 역사를 자랑하는 스웨덴 왕립발레단의 국내 첫 무대였다.

이번 공연을 선사시킨 이는 이번 공연에서 '라 바야데르'를 선보인 스웨덴 왕립발레단 솔리스트 전은선(40)씨다. 광주 출신으로 유니버설발레단(이하 UBC)간관 스타였던 그녀를 만났다.

“오랫동안 스웨덴에 머물면서 꼭 한국에 스웨덴 발레를 소개하고 싶었다. 이번 공연의 총연출을 맡고 타이틀에 '오로라'라는 말을 붙였는데, 여러 빛깔의 오로라처럼 클래식부터 모던까지 왕립발레단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모두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백운초등학교 5학년 때 발레를 시작한 전씨는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호남 예술제에서 초·중(화정여중), 고(경신여고)시절 모두 최고상을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냈었다.

“학교 특별활동 시간에 처음에는 한국무용을 했었다. 이후 발레로 바꿨는데 어린 나이에 호남예술제에서 상도 받고 그러니 우쭐했던 거 같다(웃음) 주변에서 잘 한다고들 하니 자신감도 높았고, 춤 추는 것도 즐거웠다. 고등학교 때

키로프 등 유명발레단의 공연 실황을 비디오를 외울 정도로 많이 봤었다.”

광주무용계의 대모 박금자 선생에게 지도를 받은 그녀는 이화여대에 입학했고 1995년 동아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듬해 UBC에 입단한 그녀는 UBC의 대표 레퍼토인 '심청'을 비롯해 '백조의 호수', '돈키호테', '호두까기 인형', '지젤' 등 많은 클래식 작품을 섭렵하며 발레스타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빠른 리듬감의 '흑조' 솔로는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2003년 절정의 기량일 때 그녀는 UBC를 떠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유럽행을 결심한 그녀는 여러 발레단을 수소문했고, 오랜 전통과 클래식부터 창작발레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갖고 있는 스웨덴을 택했다.

“처음에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많이 외로웠다. 스웨덴이 워낙 조용하고, 가족 위주의 사회라 더 그랬던 것 같다. 한국에 있을 때 모던 발레를 하기도 했지만 주로 클래식 발레가 많았다. 자유로운 몸짓의 발레에 대한 갈증이 많았는데 왕립발레단은 절반 정도의 레퍼토리가 모던 발레다. 정형화된 클래식발레의 틀을 벗어나 자연스러운 몸짓으로 공연하는 게 참 좋았다.”

왕립발레단의 첫 무대는 '백조의 호수'였다. 이후 '트리스탄과 이졸데' '호두까기 인형' 등 클래식과 모던 발레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무대에 섰다.

전씨는 무용가족이다. 큰 언니 정미(44), 작은 언니 정아(42)씨 모두 숙명여대 무용학과를 나와 무용학원을 운영중이며 오빠 역시 무용 용품 관련 회

사를 운영하고 있다. 선화예술학교에 다니는 조카도 무용을 전공중이다.

“발레는 자기와의 고단한 싸움이다. 자기 몸을 철저히 관리해야하고 그 과정들이 참 힘든 생활이다. 한국에 있을 때 늘 허리 통증에 시달렸고, 스웨덴 가서는 다리 수술을 하고 5개월간 재활훈련을 하기도 했다. 어려울 때 선생님께서 연습을 하러 쉬면 내가 알고, 이를 쉬면 주위가 알고, 삼일 쉬면 관객이 안다고 하겠는데 이 말을 늘 가슴에 새긴다.”

잠시 휴직 상태인 그녀는 현재 한국에 들어와 한성대 대학원에서 무용 이론 등을 공부하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철저하게 무용수로만 작업하는 게 좋았다. 최근엔 안무에도 흥미가 생기고, 어떤 식으로 작품을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 한국과 스웨덴의 직업무용단에서 17년간 춤을 췄다. 이제까지 배워왔던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론 공부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발레 교습법은 몸을 상하게 쉽다. 그 많은 에너지와 인생을 바치고 이른 나이에 발레를 그만두는 게 아깝다. 건강하게 해서 오십 넘어 서까지 무대에 서는 게 필요하다.”

스웨덴 행에 이어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한 전씨는 “단 하나의 몸짓도 허투루 하는 게 없는 동료 무용수들의 공연을 볼 때는 전율과 함께 존경심을 느낀다”며 “토슈즈를 신고 하는 정통 클래식 발레 공연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짧겠지만 자유로운 모던발레를 통해 무대에서 관객들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5·18영화 '벌어진 상처' 후원금 프로젝트 성공 108명 554만원 모금

5·18 광주민중항쟁의 뒷이야기를 담은 독립장편영화 '벌어진 상처, 깨어진 입술' 시민 후원금 모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제작사인 문화콘텐츠 그룹 '잇다'는 2일 “지난 6월5일부터 이달 1일 자정까지 진행된 '털뱀' 모금 프로젝트가 모금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제작사 측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1주일의 모금액은 50만원에 불과했다. 목표액 500만원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후 언론 보도를 시작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모금액이 조급히 늘기 시작했다.

마감일을 하루 앞둔 6월30일 오후까지 모금액은 390만원. 제작사측에서는 이만큼이라도 만족한다며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지막 하루 기적이 일어났다. 먼저 모금에 참여한 시민들이 애가 닳았지 않나 뒤 지인들을 통해 홍보를 해줬고 1일 오후 2시 목표금액을 달성했다.

1일 자정 최종 마감결과 프로젝트 동참 인원은 108명(단체 포함)에 모금액은 554만원이었다.

'잇다' 이정훈 대표는 “광주에서 영화인들이 처음으로 시도한 시민모금 제작 방식이 성공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영화 '벌어진 상처'는 독립영화 감독 백종욱의 첫 장편영화로, 오월 광주에 관한 심리치료연구 '모란꽃'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영화는 이달말부터 촬영에 들어가며 9~10월 후반작업과 OST 제작을 마무리하고 11월 광주시사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삼희 공인중개사

모든 부동산 급매매

급매처분상담  
법인소유물건  
지분소유물건  
미준공건물  
경매중인물건

복잡한 권리관계에 있는 부동산을 말소와 동시에 일괄매입  
매수자 상담환영

법률/금융상담 등구 불로동(구)그랜드호텔 3층  
(062) 234-1199 010-8730-3340  
신뢰할 안내자를 만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 신한공인중개사

신축 원룸 매매 전문

- ★북구 전대 상대·농대 1분, 신축 4층, 톨14개(주택있음) 월수익 500만, 매가 5억 9천만 (벽돌시공, 대리석시공)
- ★북구 전대 정문 1분, 신축 4층, 톨 16개 (주택 40평) 월수익 750만, 매가 8억 4천만 (벽돌시공, 대리석시공)
- ★북구 전대 정문 1분, 신축 4층, 톨 21개 (주택전환) 월수익 750만, 매가 8억 8천만 (엘리베이터, 벽돌시공, 대리석시공)
- ★서구 쌍촌동 문천역 2분, 신축 3층, 톨 8개(주택있음) 월수익 280만, 매가 5억 2천(보 2천, 용 1억 2천)
- ★서구 쌍촌동 신축 4층, 원·투룸 14개 (주택있음) 매가 6억 9천만
- ★북구 삼각동 신축 4층, 원·투룸 11개 (주택있음) 코너, 최고 위치 월수익 330만 (보 2500만, 용 1억 2천) 매가 7억 5천만

상가매매

- ★상가 임대 1층, 수원지구, 대방 5차 후문 59㎡ (보 3천, 월 130만) 모든업종가능
- ★상가 임대 3층, 수원지구, 모이엘가 APT 150㎡ (보 1천, 월 90만) 즉시입주, 시비없음
- ★상가매매 1층, 수원지구 롯데마트, 영화관 300세대 대방 5차 APT 후문 59㎡ 매가 3억 6천, 임대중 (보 3천, 월 150만)
- ★상가 매매 1층, 수원지구 신원은행 뒤 300세대 모이엘가 APT 후문 3층 280㎡ 매가 3억 2천 (보 2천만, 월 200만, 용 2억 5천만) 확원, 병원, 사무실적합
- ★상가매매 1층 4칸, 수원지구 대방 1차 APT 정문 대지 304㎡ 매가 6억 3천 (보 8천만, 월 360만, 용 2억 5천만)
- ★상가매매 1층, 수원지구 대성백리힐 대지 304㎡ 매가 7억 (보 1억 3천만, 용 4억)

독서실 급임대

수원지구 3천세대 모이엘가 APT 2층, 총 91석 신축, 최신식 시설, 최고위치 (보 5천만, 월 250만, 시비약간있음)

☎062)527-7600  
H.P. 010-6670-98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국민은행 LG전자옆)

###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특랑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 해수욕장과 선착장 그리고, 최고의 위락시설이 어울린 절경의 별장지 토지 4,900㎡(1,485평) 건물 245㎡(75평)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건물(100%)에 수입 창호등 최고급자재 및 내부 공기 자동배출방식의 숨쉬는 집. 지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매매가 : 협의

최고의 도심속 전원주택지 지선동 2차순원도로 인근 도심속의 전원주택지 전 3,700㎡(1,120평) 매가 3억9천만원

지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전원주택단지, 공장, 창고부지 등 나무시 중순동 동선대 인근 2차선도로 접 자연 녹지 전 16,200㎡ 매가 9억 8천만원 절근성편 리투지적합

저렴한 전서판매장 주월동 상가 풍양지구 입구 대로변 코너 대지 512㎡ 건물560㎡ 매가 7억 9천(가구, 전자, 자동차, 이웃도 등)전서판매장 최적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

###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모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 전남여고 건너편 ◀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 임대·급매매

웨딩홀 상설뷔페 임대 2,824㎡ (854평) 주차 500대 보2억 / 월 1,500만 매매가 15억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임대 2,479㎡ (750평) 주차 500대 보2억/월 1,200만 매매가 10억

급매인수 11억 건물 5,700㎡ (1,740평) 보증금 4억 /월 2,700만 감정가 78억 급매가 25억 용지역 14억

☎010-3605-7814

###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 동원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전문)

상가건물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7층) 보 5억 4천, 월 3500만 매 46억 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3층) 보 3억 원, 월 1200만 매 24억 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10층) 보 25억, 월 6500만 매 130억 원
- ★광산구 수원지구 (5층) 보 2억 원, 월 1390만 매 27억 원
- ★광산구 신창동 (5층) 보 2억, 월 1040만 매 19억 원

대지/답

- ★금호동 계획도로접 자연녹지 3,400㎡ 매 32억 원 (병원, 차고지, 대형기든, 장래 예상장, 투지최적)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960㎡ 매 36억 원 (병원, 사옥)
- ★차평동 광순간도로 395㎡ 매 14억 원 (병원, 사옥, 전서, 전서)
- ★쌍촌동 문천역부근 상업지 845㎡ 매 125억 (사옥, 전서, 병원, 도시형)
- ★상가건물, 내대지 급구

010-3753-0033